

코스피 신고가 경신 불구 광주·전남 상장법인 올상

코스닥본부 광주센터 '5월 증시동향' 분석
지역 상장사 시총 14%·비중 0.5% 감소
투자자 거래대금은 19% 급증...밸리 동참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고공행진 속에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은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한 가운데 한국전력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의 주가 부진이 지역 증시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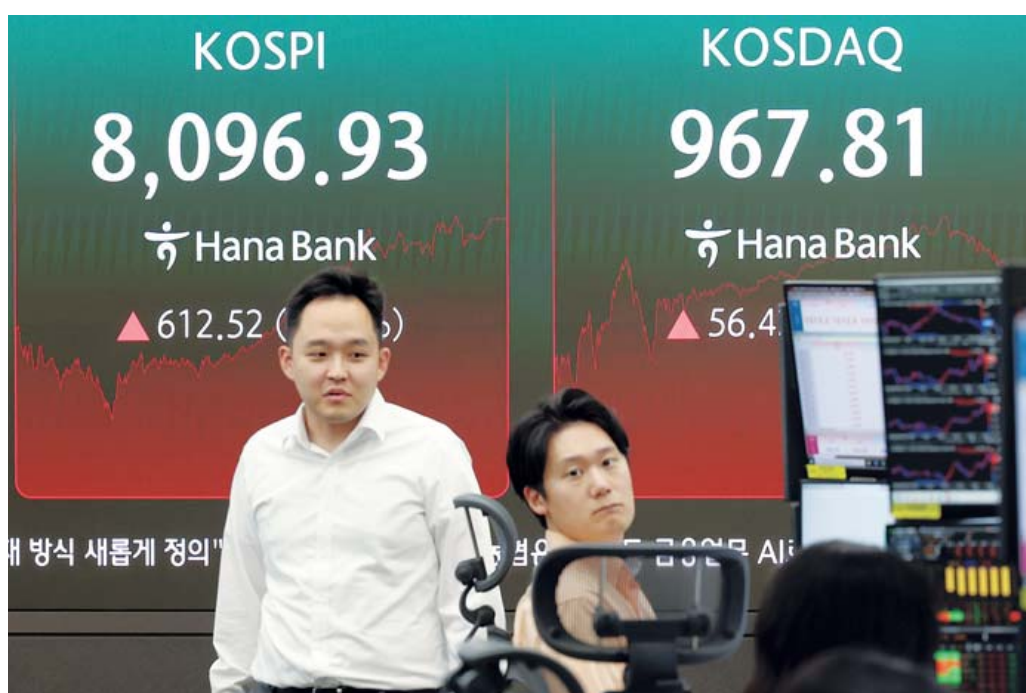
9일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30개 상장법인의 총 시가총액은 34조 9천365억원으로 전월 대비 오히려 13.8% (5조5천 87억원)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6곳의 시총이 13.6% 줄었고, 코스닥 상장사 23곳은 15.6%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내 증시에서 광주·전남 상장사가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0.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위축됐다.

지역 증시의 이 같은 침체는 시총 비중이 큰 기관 대형주들의 부진에서 비롯됐다.

지역 최대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한 달 새 2조 9천851억원의 시총을 잃어버렸고, 대한조선 역시 1조409억원의 시총이 증발하며 지역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시총 규모별로 보면 광주가 14.6%, 전남이 13.7% 각각 감소해 양 지역 모두 손실을 마쳤다.



코스피·코스닥 급등 마감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로, 코스닥은 56.42포인트(6.19%) 오른 967.81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반면 상장사들의 주가 부진과 별개로 지역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5월 한 달간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10조824억원으로 전월 대비 19.1% (1조6천191억원)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 거래대금은 135% 줄어든 반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무려 34.7% 급증한 7조7천20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폭등세를 가능한 지역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위주로 공격적인 매매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23.0% 급증했고, 전남 투자자도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국내 전체 증시는 미·이란 종전 기대감과 AI(인공지능) 투자 심리 지속, 기관 투자자의 9조원대 강력한 순매수에 힘입어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KOSPI) 지수는 5월 말 기준 8,476.15 포인트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28.5%라는 경이적인 폭등세를 기록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은행, 평균잔액 늘리면 매주 현금 보상

입출금통장 '주간머니 줍줍 이벤트'

미션 달성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광주은행은 고객의 자발적인 저축 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12주간 '주간머니(주간머니 줍줍)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응모 후 2026년 5월 평균잔액 대비 입출금계좌 평균잔액을 늘리면 달성 구간에 따라

매주 현금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반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축 목표를 세우고, 저축의 즐거움과 금융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목표 구간은 평균잔액 증가 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 운영된다. 달성 구간에 따라 매주 5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현금 리워드가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리워드는 목표 달성한 최상위 구간 기준으로 지급하며,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리워드는 지급일 기준 정상 계좌를 보유하고,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한해 제공된다.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방문하거나 광주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재만 기자

젠슨황 투자대상 '로봇·게임' 기업 관심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V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6월4일~6월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11.2%, 코스닥은 5.8%가량 하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를 12조원, 기관은 4조원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무려 16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하락장에 온전히 주식을 받아 가는 모습이다.

개인들의 신용거래 용자 잔고는 38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이고, 증권사들의 주식담보대출은 각 회사의 한도가 딱 차 더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월 27일 상승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두 종목의 변동성을 더 키웠고, 코스닥은 미국의 국제 금리 상승의 여파로 바이오 중심 투매가 나왔었다.

매크로의 변화 속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는 없기에 급락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양새이고 6월 한 달간 지수는 7,400~8,100대에서 쉬어가지 않을까 싶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최근 지속 우려했던 요인들이 불거지며 큰 폭의 조정을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는 4.55%까지 재차 상승하며 고점을 갱신했고 AI 반도체의 대표주자인 브로드컴의 보수적인 AI 가이던스 발표, 6월12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대규모 유동성 흡수 우려에다가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새로운 약재라기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던 시장이 조정의 명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정을 AI 투자 사이클의 구조적 둔화 신호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AI 투자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투자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고 그 기업들의 실적전망 또한 견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하락은 하반기 유동성 흡수를 앞둔 숨 고르기이치 글로벌

별 증시 상승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단지 국내 투자자들의 최근 걱정거리가 높아진 환율이다.

미국의 양호한 소비와 고용 속 높은 장기 국제 금리와 AI 주도국 지위는 달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고, 미국 투자자들의 사상 최대 이벤트인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올해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 증시가 현금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환율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고유의 펀더멘털 훼손이라기 보다 단기 수급적인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달러 리버를 끌어들이는 수출 중심 기업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연말 일명 '간부치킨 회동' 이후 약 7개월만 이번 젠슨황의 방한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었다.

이번 방한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퀀텀점프한 만큼 이번에도 수혜주로 거론된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 NAVER의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AI에 이어 젠슨황의 다음 GPU 생태계 확장 대상은 로봇과 게임으로 보인다.

한국의 제조업 기반 데이터가 풍부한 국가로 로봇 하드웨어 기술력 또한 뛰어나기에 퍼지컬 AI 구축/확장의 거점으로 한국을 낙점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7월 현대차 정이스 회장과 오찬과 두산 박정원 회장 회동, 8월 LG 구광모 회장과 정이스 회장 회담 등 로봇 기업 오너들과 만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방한 첫 일정으로 e스포츠의 상징인 페이커 선수와 PC방 만남을 가진데 이어, 7월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의 게임-AI분야 협력 방안 논의 이후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회동까지 한국과 기존 반도체 협력을 넘어 로봇과 AI 기반 게임 등 차세대 인공지능 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갔다.

추후 어떤 직접적인 연계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고, 그중 엔비디아 입장에서 단연 현대차의 로보틱스 기술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근 구글과의 협업도 심화되고 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로봇 아틀라스를 전면에 내세워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이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그림이 점차 그려지고 있다.

제이영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09호 (여의도동 한서빌딩) TEL: (02) 782-6630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개 발**
(주) 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 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 표 이 범 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 업 내 용
건 물 관 리 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 소 용 역 업
경 비 용 역 업
승 강 기 관 리 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